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6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표지 사진 • 회원

꽃들은 무심히 피었다가 무심히 진다.
자기가 지닌 빛깔과 향기와 모양을
한껏 펼쳐 보일 뿐.
사람처럼 서로 시새우거나
헐뜯지도 않고 과시할 줄도 모른다.
그저 말없이 자기가 할 일만을 할 뿐이다.

– 법정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2014 / 6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직업인가 천직인가
처음 마음으로	09	도(道)는 산속에 있지 않다
책 속의 책	16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천진난만	18	평상심이 도(道)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19	단오절의 추억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2	아름다운 마무리 – 장희순 어르신
내 마음속 풍경	25	결혼의 조건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8	아리엘 도르프만의 연극 〈과부들〉
참교육 이야기	32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샌디에고 암탉	36	오, 반가운 우리 태극기
한국불교전설	38	세조와 고양이 〈오대산 · 상원사〉
향기나는 우체통	42	미혼모에게서 온 편지 · 장학생에게 온 편지
사색의 뜰	44	행복 나눔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6월 1일 발행 / 통권 232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직업인가 천직인가

글 • 법 정(法 頂)

무슨 서류를 만들 때 직업란을 두고 나는 망설일 때가 더러 있다. 생계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선뜻 그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직'이라고 써넣기도 그렇고, 불교 승단에 소속되어 있는 몸이라 하는 수 없이 편의상 '승려'라고 쓰긴 하면서도 석연치 않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덕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말로 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수단을 삼는다면 그건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승려가 과연 직업이 될 수 있을지 늘 갸우뚱거려진다.

세상에는 별의 별 직업이 많다.

즉, 의식주의 생계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병아리 감별사도 있고 피아노 조율사도 있다. 나무꾼도 있고 꽃을 가꾸는 사람도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대략 2만 3천559종류의 직업이 있다는데 그 중에는 희한한 직업도 많다. '매트리스 워커'라는 직업은 침대 매트리스의 부드러움을 검사하기 위해 날마다 여덟 시간씩 맨발로 침대 요를 밟고 다니는 일로 생계를 삼는다. 또 '수염 닦기'라는 직업은 지하철 같은 곳의 광고에 그려진 미인의 그림에 장난으로 그어 놓은 수염을 닦으며 돌아다니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직접 파리의 지하철에서 겪기도 한 일인데, 출퇴근 시간의 혼잡 속에서 사람을 완력으로 전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이른바 '푸시맨'이다. 체력이 좋은 젊은 남녀들이 눈에 띄는 유니폼을 입고 웃으면서 사람들을 밀어 넣는 모습은 피차가 유쾌하게 여겨졌다.

현대 사회가 고도로 분업화됨에 따라 직업 또한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다. 다 필요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이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웃과 사회에 덕이 되는 것은 좋은 직업이고, 해독을 끼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생활의 한 방편으로 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날로 생기를 잃어갈 것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애착과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은 일정한 수입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애착과 긍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돈 몇 푼에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팔려가는 일이 허다하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다.

윤오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 생각난다.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한 노인이 있었다. 주문을 받고 나서 노인은 열심히 깎아 나갔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이리 돌려 보고 저리 돌려 보며 굼뜨기 시작, 마냥 늑장이다. 곁에서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시외로 떠나는 차 시간에 초조해진 주문자는,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노인은 못 들은 척한

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대로 달라고 했더니 노인은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 되나?" 한다. 그는 기가 막혔다.

"살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단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차 시간이 없다니까."

노인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다른 데 가서 사우. 난 안 팔겠소."

방망이를 깎아 달라고 했던 그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아 될 대로 되라는 심경에서 체념한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 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노인은 비록 길가에 앉아 방망이를 깎고 있을망정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다. 노인이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대충대충 깎아 하나라도 더 만들어 팔면 되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함부로 내던져 버릴 수가 없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생활의 방편이 아니라 생활의 목적이고 삶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꿋꿋한 장인 정신이다. 노인은 방망이를 깎는 일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깎고 다듬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벌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 가면서 의연히 살았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얼마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방망이를 들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 보더니 그제야 다 됐다고 내주었다. 그는 값을 치르고 그 자리를 떠나와 뒤를 돌아다보니, 노인은 태연히 허리를 펴고 동대문 지붕 추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의 천성에 알맞은 직업을 천직天職이라고 한다. 인간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저마다 몫이 필요한 일이 주어져 있을 것 같다. 천직을 가진 사람은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 '인간' 이 날로 성숙되어 가고 그 일에 통달한 달인이 되어 간다. 천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애착과 긍지를 지니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꾸준히 지속하게 되면 그 일이 바로 천직이 아니겠는가.

얼마 전에 읽고 감명을 받은 〈마지막 손님〉 (다케모도 고노스케 지음)을 소개하고 싶다.

어떤 제과점에 4년째 근무하는 열아홉 살 게이코라는 아가씨의 이야기다. 제과점 이름은 춘추암春秋庵.

눈이 내리는 겨울밤 가게 문을 닫고 큰길로 나섰을 때 지붕 위에까지 쌓인 자동차 한 대가 어느 집을 찾는 듯 멈칫멈칫 지나갔다. 게이코가 혹시나 해서 돌아보니 그 차는 자기네 가게 앞에 정차했다. 게이코가 달려가 자동차 창에 노크를 하자 창문이 열렸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앞으로 하루 이틀이란 말을 오늘 아침 의사로부터 듣고, 어머니에게 뭐 잡숫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전에 오오쓰에 있는 춘추암의 과자를 먹었더니 무척 맛있더라. 한 번 더 그걸 먹고 싶구나." 하셨단다. 아들은 곧 "제가 사올 테니 기다리세요" 하고 집을 나왔지만 때마침 눈이 내려 고속도로에 차들이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밤늦게 도착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가게의 문이 닫힌 후라 난감해 하던 참이다.

이 말을 들은 게이코는 가게 문을 열고 환자가 먹을 만한 과자를 손수 골랐다. 손님이 값을 치르려 하자 게이코는 이렇게 말한다.

"이 과자는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 하고 의아해 한 손님에게,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 가게의 과자를 잡숫고 싶다는 손님께 모처럼 저희들의 성의니까요."

"눈 오는 밤이니까 운전 조심하셔

서 돌아가십시오."

문 밖에 나가 전송을 한 뒤 가게로 돌아온 게이코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그날 매상에 추가시켰다. 코트를 사기 위해 저축해 온 그 돈에서.

조그만 가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조그만 당신의 가게에
사람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자.

이 말을 게이코는 자신이 근무하는 일터에서 손님을 대할 때마다 그대로 실천해 나갔다. 그 가게에 들은 손님들은 게이코의 이런 직업 정신에 하나같이 감동하여 그녀를 좋아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그것이 한낱 생계를 위한 방편이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소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알차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 남을 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내 일이고 내 삶의 몫이다. (1995)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사를 하시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후원금을 변경하신다거나,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우리 심성과 세상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회원 그리고 여러 시민과 나눠줄 수 있는 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 **이메일 :** clean94@daum.net | **전화 :** 02.741-4696~7

도(道)는 산속에 있지 않다

글 • 덕 운(德 耘)

사람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 시달리노라면 때로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며 살고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처자, 재물, 명예 등의 세속사에 걸려 쉽게 산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일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돈이고 권력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한적한 시골에 가서 마음 편히 살아야겠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 말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까닭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번잡한 세상사 속에서 자식 걱정, 돈 걱정 하다 보면 어느새 늙어서 머리가 허예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인생사 참으로 무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온갖 애욕에 얽혀 인생의 참모습을 보기가 힘이 들지만, 평생을 집과 직장을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도를 닦아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생겨나는 것이지만, 늙어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사대(四大)가 부실해지고 용기가 사라지면 세상의 갖가지 인연들이 늘어 도 닦는 마음이 아주 사라져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발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정으로 맺어진 세상의 갖가지 인연들이 늘어나면 그것들이 발을 묶어서 세속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도를 닦지는 못하더라도 세속에 살면서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인 선행(善行)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살생하지 아니하고
둘째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넷째 거짓말하지 말고
다섯째 욕을 하지 말고
여섯째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일곱째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여덟째 탐욕에 빠져들지 말고
아홉째 성내지 말고
열째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 선행, 곧 10선행입니다.

이 열 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선행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살생하면 십악행의 하나가 되고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돌보면 곧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므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악행이 되고 반대로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복덕을 짓는 것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망언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모두 선행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마음에 탐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항상 보시를 생각해야 하며,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심에서는 분노가 다 녹아버립니다.

모두가 내가 잘했고 잘났다고 우기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릇된 일들이 모두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부처님께서는 10선행의 마지막에 불치심(不癡心)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을 잘 닦아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순화하고, 정화하는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순화하려는 노력 없이 억지로 선행을 닦으려 하면 선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이기심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기심을 누르고 마음을 맑게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름지기 부처님의 제자라면 경전을 항상 곁에 두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순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하여 마음이 점점 순화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위 사람까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편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에서 편안해할 때 나의 마음도 편안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편안해하지 않으면 아직 나는 편안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조석으로 읽는 〈천수경〉 속의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나옵니다.

내가 칼산 지옥에 들어가면, 칼산 지옥 없어지고
내가 화탕 지옥에 들어가면, 화탕 지옥 소멸되며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이 고갈되고
내가 아귀 세계에 가면, 아귀 배절로 불러지고
내가 아수라의 세계에 들어가면, 아수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축생계에 들어가면, 축생들이 모두 대지혜를 얻을지이다.

이러한 큰 원력은 마음이 그만큼 순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을 통해 마음이 크게 순화되면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순화되지 못하여 참된 선행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고 내팽개칠 일만은 아닙니다.

오직 나의 분수에 맞게 힘에 따라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처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포기할 때 도(道)는 나에게서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분수와 처지에 맞게 계속 꾸준히 수행해 간다면 언젠가는 대도를 성취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속에 살면서 부단한 수행을 통하여 도를 완성한 부설 거사 이야기입니다.

부설 거사는 신라 사람인데 성(姓)은 진(陣)씨고 이름은 광세(光世), 자는 의상(宜祥)이며 선덕여왕 때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출가하여 경주 불국사에서 원정(圓淨) 스님의 제자가 된 뒤 영희(靈熙), 영조(靈照) 스님 등과 더불어 지리산, 천관산, 능가산 등지에서 수년 동안 수도했습니다. 그 뒤 문수도량을 순례하기 위하여 오대산으로 가던 중,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들에 있는 구무원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18세 된 묘화(妙花)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나면서부터 벙어리였으나 부설 거사의 법문을 듣고 말문이 열렸으며, 그때부터 부설 거사를 사모하여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설은 승려의 신분인지라 그 청을 거절하니 묘화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에 부설은 전생의 인연이라 생각하며 '모든 보살의 자비는 중생을 인연 따라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묘화와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도반인 영희, 영조 스님과 헤어지면서 15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자신도 도를 열심히 닦을 테니 두 도반도 같이 열심히 정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부설은 15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정진하며 수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을 낳아 길렀습니다. 거사는 비록 몸은 마을에 있었으나 지극한 정진으로 마음이 순화되어 견성(見性)의 경지에 있었으니, 늘 즐겁고 편안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도를 닦던 두 도반은 다시 김제군 만경들을 지나다가 15년 후에 만나자는 부설 거사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부설을 찾아왔습니다. 두 도반은 부설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아, 처자식 거느리고 속가에 사는 재미가 어떠한가? 이제 도는 멀리 가버렸겠구먼." 하고 부설에게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두 도반의 말에 부설은 "나는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네. 자네들은 그동안 금강산이랑 좋은 수도처를 다니면서 도를 많이 닦으셨겠지. 내가 자네들이 올 줄 알고 저기에 물병 3개를 걸어 두었으니, 우리 저 물병으로 서로의 도력을 한번 시험해 보세나." 하고 말하였습니다.

두 스님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설의 제의에 응했습니다.

먼저 영조 스님이 막대기로 병을 치니 병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영희 스님이 막대기로 병을 치니 마찬가지로 병이 깨어져 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 거사가 막대기를 받아 병을 치니 병은 깨어졌는데 물은 그대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두 스님은 깜짝 놀라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는 출가하여 수도에만 전념했어도 도력이 그렇지 못한데, 재가에 있으면서 도가 이렇게 수승하니 우리는 그저 부끄럽고 놀라울 따름이네."

그러자 부설 거사는 두 도반을 위해 한 수의 게송을 지었습니다.

目無所見無分別 (목무소견무분별) 이고
耳聽無聲絕是非 (이청무성절시비) 로다.
分別是非都放下 (분별시비도방하) 하니
但看心佛自歸依 (단간심불자귀의) 니라.

이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니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듣는 바가 없으니 모든 시비가 끊어졌도다.

분별심과 시비심 다 놓아버리니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할 뿐이라."

게송을 마친 부설 거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공부를 마치고 생사에 자제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인도에는 유마 거사가 있고 중국에는 방 거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설 거사를 가장 대표적인 거사로 꼽고 있으며, 이 세 분 거사를 일러 가장 도력 있는 3대 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 환경이 좋은 산중에서 도를 닦으면 좋겠지만, 세속에 살면서도 인연 따라 열심히 정진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설 거사의 정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설 거사처럼 불사선행(不捨先行), 즉 선행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살이 중에서도 매일 집에서 108배를 하거나 참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외는 신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재가에 신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으로 보아 한국불교의 앞날이 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불사선행(不捨善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 중에서는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다고 해서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복잡한 세상에 있다고 해서 도가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실천해 간다면 도(道)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본바탕이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생명들이 숨져 간 것 같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멀쩡한 닭과 오리 등 수백만 마리가 산채로 살처분을 당하고, 급기야는 진도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숨진 사람들 중에는 아직 꿈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가버린 어린 학생들이 많아 가슴이 저립니다.

살처분으로 숨져간 모든 생명과 세월호 침몰로 숨진 희생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 불기 2558년 4월 초하루

(2014년 4월 29일)

한 송이 연꽃의 맑고 향기로움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회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열정과 나눔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그 맑고 향기로움이 어려운 이웃들과 공익목적으로 진하고 그윽하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후원과 실천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 계좌 안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숲기행 참가비 계좌**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문의** : ☎ 02.741-4696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 지음 / 김주경 옮김 / 동문선

지난 여름에 읽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에세이스트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아직도 여운을 남기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는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느림'은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홀로사는 즐거움 중에서

에세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Du Bon Usage de la Lenteur)'는 1998년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논픽션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프랑스 지식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피에르 쌍소는 이 책을 통해 속도 경쟁의 시대에서 쫓기듯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림'이고 '느림의 삶'입니다. 그의 이런 시각은 세계서 가장 여유 없이 '빨리빨리'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국내 첫 번역본이 서점가를 휩쓸면서 뒤이어 후속편이 4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쌍소의 핵심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저서는 1권이기도 합니다.

쌍소는 말합니다.

'느림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계획에 이리저리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술자리를 베풀고, 잠깐씩 졸면서 낮잠을 즐기고, 정원을 돌보고, 신선한 바람을 쐬고……. 별로 대수로울 것도 없는 이런 활동이 노동할 힘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휴식의 순간들이다.'

여기에서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도태나 일탈도 아닙니다. 빠른 속도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조금 천천히 에둘러 가더라도 인생을 바로 보자는 의지로서의 느림인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의지, 시간이 뒤죽박죽 되도록 허용치 않는 의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결합한 신속성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유례가 드문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한국 사회에서 느림은 '탈락'을 의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여, 남보다 앞서진 못하더라도 뒤처지진 않아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가 치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사회적으로 퍼진 조급증과 성급함이 안전보다는 속도를 중요시했고 생명과 인권보다는 수익과 예산절감에 더 급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최근 세월호 침몰 등 숱한 사고로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썼고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국가적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공감대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제는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자는 의견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느림'과 '여유로움'을 선택하여 내적 통찰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며, 느림의 미덕이 자리할 정신적 여유와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편집자 주

평상심이 도(道)

맑은 만남(淸 逢)

단오절의 추억

글 • 강인철(회원)

단옷날(端午) 아침, 연초록의 이파리처럼 여리고 예쁜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조용하던 집안이 금세 시끌시끌해졌다. 미처 치우지 못한 화장품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손녀와 이를 말리려는 할머니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럴 땐 아이들을 데리고 휑~하니 나가주는 게 내 몫이다. 녀석들 월드컵공원에 풀어놓으니 물고기가 제물 만난 듯 신이나 어쩔 줄 모른다.

시원하게 분수를 뿜어내고 있는 호숫가 한쪽에선 여자아이들에게 창포물로 머리도 감겨 주고 널뛰기와 제기차기, 투호 놀이마당도 있어 어린이 세상 그대로다. 저렇게 발랄한 어린것들이 요즘은 대부분 가정에서 외동인 채 어른들의 손에 옥죄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애잔하다는 생각이 뜬금없이 스친다.

농가월령가에 보면 1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성하여 물색(物色)이 생신(生新)한 날이 바로 단오절이라 이날을 어린이를 위한 잔칫날로 기록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고 오곡의 씨 갈이가 한창인 5월이 우리네 인생살이에선 어릴 때와 같은 시절로 보아서였나 보다.

내 어렸을 적 단옷날에는 4촌 형들과 외갓집에서 뛰어놀던 아련한 추억이 많다. 한식과 추석이 조상님을 위한 어른들의 날이었다면 단오는 분명 아이들의 명절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어린이 날'인 듯싶다. 음력과 양력에 시차가 있기는 하나 5

월 5일을 그날로 삼은 게 꼭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외갓집에는 과실나무들이 집 주위에 참 많았다. 감, 자두, 앵두, 포도 등 마당 안팎에 정말 없는 과일나무가 없었다. 해가 저물면 동네 이장님 댁 커튼을 빌려다 꾸며 놓은 공회당에서 형과 누나들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라는 신파조 연극을 했고 우리는 노래자랑으로 연필과 공책을 상으로 받았던 기억도 생생하다.

사실 그 무렵이면 농촌에서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철로 어떻게 해서든지 단오 전에 모내기를 마쳐야 일 년 농사에 실기(失期)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와도 어른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하셨다. 퍼붓는 빗줄기를 그대로 맞아가며 볏짚으로 만든 '도롱이'를 등에 걸치고 모내기를 하시던 모습도 많이 보았다.

그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아저씨들은 다시 사랑방에 모여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거나해진 모습으로 '두만강 푸른 물에 / 노 젓는 뱃사공…' 을 부르기도 했고 푸짐한 농악으로 한바탕 신명을 풀어내기도 했다. 그런 바쁜 중에도 아저씨들이 동아줄을 굵게 꼬아 동구 밖 정자나무에 그네를 매어 주면 그곳은 엄마와 누나들의 놀이터였다.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 세상…' 을 목청껏 부르며 방정환 선생님의 동화를 읽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습자 시간에 먹을 갈아 빼뚤빼뚤 붓글씨로 열심히 써 봤던 〈어머니〉라는 시 한 수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오월이라 단옷날에 갑사댕기 드려주며 /
가르마에 주사 찍고 삼재팔난 막아주던 /
어머니의 크신 사랑 한시인들 잊으리까.
오월이라 단옷날에 크나크신 고목 남게 /
별 탈 없이 잘 자라라 빌어주던 지극정성 /
잊으랴 잊으리까 그리워라 울 엄니.

한식과 추석을 쇠면서는 송편을 먹었고 단오절에는 수리 떡이 나왔다. 떡시루에 들어갈 수리취 잎을 뜯어오는 것은 형들 몫이었다. 산에서 내려와 허기진 우리들에게 어머니께서 손으로 한 입씩 넣어 주셨던 앵두편은 젤리와 비슷했고 빨간색 앵두 화채는 먹기조차 아까울 만큼 예뻤다.

철없는 손주들은 창포와 수선이 어우러진 난지 호숫가에서 언제 사귀었는지 낯선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게임기도 만지고 술래잡기도 하며 놀고 있다. 어린것들이 꽃보다 아름답다.

저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된다 하여도, 오늘 내가 안타까워 중얼거렸던 이야기들을 서리서리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됐으면 참 좋겠다. 미풍양속은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근본이요 사회구성의 정신적 뿌리다. 그래서 결코 변질돼서도 잊혀져서도 아니 될 일이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다시 그다음 아이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되살려 재미있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강인철 님은 50여 년 동안 오대양 육대주 57개국을 여행한 1세대 배낭 여행가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봉사 중이며 중.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세계 속의 한국인' '국악의 새로운 이해' 등의 주제로 강의 중이며, 오래전부터 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호부터 '우리나라의 세시풍습 & 가족이야기'로 새롭게 연재하고자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 복지시설 자원활동 참여 안내

- **진인요양원** :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 **묘희원** :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셔야 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 오후 무료급식 자원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6월의 결연 대상자 - 장희순 어르신

매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요양보호사가 이제는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3번 받고 이제는 걷지 못한 채 방 안에서만 생활한 지가 이제 만 5년째로 접어듭니다.

장희순(가명, 76세) 어르신은 5년 전 집을 나서다 대문 앞에서 넘어지고 나서 그만 앉은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20만 원씩 지출하던 월세는 30만 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다행히 2년 전 노인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후에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가사와 청결,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제공되어온 방문요양서비스 때문에 실상 어르신의 삶은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방문요양서비스 요금을 입금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바닥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장희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매월 고정적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형편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의료보호도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비나 의료비 부담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거노인들은 아파도 자식에게 말을 전하지 못하고 병원 진료와 치료를 포기하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희순 어르신이 매월 지출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요금은 월 12만 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금액은 국가 지원 85%, 본인 부담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 15%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장희순 어르신 같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의 절반인 7.5%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7.5%의 본인 부담료가 바로 매월 지출하고 있는 12만 원입니다. 이 12만 원이 막막해서 방문요양서비스 중단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장희순 어르신은 왼쪽 팔의 인대가 파열되어 있어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른손도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머리조차도 감을 수 없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스스로 목욕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반찬을 만들고 빨래하는 일, 혼자 화장실 가는 일조차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손주 한 명을 데리고 사는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16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장희순 할머니 가족의 삶은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밑반찬 지원을 받으시는 인연으로 2007년 12월 인근 드림랜드 웨딩홀에서 진행했던 '맑은 세상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던 장희순 어르신은 이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시 맑고 향기롭게 김만옥 회원님이 본인의 승용차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송영 자원봉사를 담당하였고, 이후 김현주 회원님이 전화말벗 자원봉사자가 되어 수년 동안 애틋한 정을 이어왔습니다.

어르신은 2남 3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동안 이혼한 장남의 아들을 혼자 길러왔습니다. 장남은 지방에서 노동일에 종사하며 지병으로 고생했고, 때문에 딸들이 어르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공해왔습니다. 손주는 장성했지만 중학교를 중퇴해서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부 알레르기 질

환이 있어서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남은 집으로 돌아와 어르신과 같이 살고 있지만 통풍이라는 불치병으로 작년부터 3번의 수술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다가 현재,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청소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딸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버텨왔지만 넉넉지 않은 딸들의 형편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어려움을 호소해보았지만, 장남의 이혼사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혼한 며느리까지 다시 찾아가 만나야 하는 자산조사의 높은 벽만이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내장으로 3년 전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희순 어르신은 5일만 보건소를 통근하며 무료로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위동 언덕 꼭대기 집에 사시는 어르신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이동편의를 보조할 수 있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기부문화 진작을 통해 법정 스님의 청빈을 함께 나눕니다.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결연후원 사업을 위한 '아름아운 마무리' 사회복지기금이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6월 6일(금, 현충일), 6월 29일(일) 성북동 길상사 경내

결혼의 조건

글 • 이경숙(수필가)

돈 없이도 결혼할 수 있을까? '돈이 없다'는 기준은 '조금 부족하다'이거나 '남보다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돈 없이 결혼을 해? 남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자라고 해도 그렇다.

예식비, 예단비, 가구나 전기제품 등 살림살이 구입비, 신혼여행비……. 이런저런 비용을 합하면 보통 몇 천만 원은 훌쩍 넘나든다. 그런데 예단비 300만 원만 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신부 옷 한 벌 사 입으라며 1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결혼을 위해 실제로 쓴 돈은 200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다.

아는 이들과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청년 한 쌍이 왔다. 일행 중 한 명의 아들과 그가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였다. 잠시 인사하러 들렀다고 했다. 그들 부부와는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 함께 온 아가씨를 유심히 봤다. 요즘 아가씨 같지 않게 수수한 차림인데 하는 짓이나 말하는 것이나 참 예쁘다.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외모 또한 그 정도면 훌륭하다. '어디서 정말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왔구나!'라며 흡족한 눈길로 바라봤다. 그 후로도 그들은 계속 만남을 이어왔고 만난 지 몇 달 전, 드디어 혼인을 했다. 워낙 눈에 들었던 아가씨라 내일처럼 기뻤다.

그런데 그들의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다. 결

혼을 시키기는 해야겠는데 워낙 가난한 집 딸이라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가진 게 없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학에 다니는 동안 대출해 쓴 학자금이 남아 있었고 그 집안의 경제를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던 아가씨라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결혼한 다음에도 친정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이 중요하지, 뭘 망설이느냐며 부추겼지만, 신랑 측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

그녀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줄곧 과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용돈벌이가 아니었다.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벌어들인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도대체 다 어디다 쓴 것일까? 엄마 암 투병비를 댔고 집안 생활비를 댔다. 그러느라 한 푼도 모으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벌어도 부족한 돈은 학자금 대출로 충당했다. 그들의 결혼이 늦어진 것은 그녀가 학자금 대출이라도 모두 갚은 다음 결혼하자고 하여 그 시간을 기다려줬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녀는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잡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취업을 하여 친정 걱정도 벗게 되었다.

어쨌거나 지인의 아들은 그녀와의 결혼을 결정했고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려다 보니 당사자는 물론 여자 측 집안에서도 내놓을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단비는커녕 신혼살림을 준비할 돈도 없는 것이다. 신혼집은 그의 아들이 모아놓은 돈과 회사에서 저리 융자로 얻은 돈을 합해 해결했고 살림살이는 모두 아들 카드로 사들였다. 이 판국에 예단은 무슨…….

그런데 신랑 측 엄마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더란다. 시집 어른들이 번연히 살아 계시는데 인사를 전혀 안 할 수 없고,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봐도 맨몸으로 왔다는 말을 듣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비며느리에게 전화했다.

"네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냥 시집오면 안 되겠다. 네 체면이 있지 않느냐? 집안 어른들이 모두 열 분인데 1인당 20만 원씩이라도 드릴 테니 200만 원은 가져오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해준 시어머니 자리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한다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의 뜻을 흔쾌히 받아들여 100만 원을 더 보태 30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뚝 떼어 그녀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돈으로 네 옷 한 벌 사 입어라. 좀 더 넉넉히 주고 싶다만 그러면 네가 부담을 가질까 봐 이것만 주마."

크게 부족함 없는 아들이다. 대기업 사원이라 월급도 많이 받고 인물도 훤칠하며 어디에 내놔도 꿇릴 게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한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어 섭섭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어차피 결혼하기로 했으면 다 덮어야지. 사람 하나는 나무랄 데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요즘 그런 아가씨 없으니 우리도 횡재한 거지."

내 아들과 결혼할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겉모습도 예쁘다면 대단한 횡재를 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그가 가진 조건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품이라든지, 성격이나 가정환경,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소양 같은 걸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훌륭하다면 가난한 여자면 어떻고 조건이 좀 떨어지면 어떤가. 결혼하여 제 앞가림 잘하고 내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자녀들 건강하고 반듯하게 길러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연극 〈파부들〉

- 세월호 참사 앞에서 다시 읽는 연극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견가)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것부터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OECD에 가입하고 GDP가 3만 불에 가까워진 나라,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를 수도 없이 치른 나라,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나라에서 대형 여객선이 갑자기 뒤집어지고 물에 잠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고, 해경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마구 쏟아내며 속보경쟁에만 몰두했고,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세월호가 물에 잠긴 뒤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날마다 얼마나 곳곳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고, 300명이 넘는 목숨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을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배 역시 침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몰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청해진 해운과 정부에게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은 결국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 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배의 설계를 바꾸고 화물을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실은 회사와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담당 부처, 재난 대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한 정부와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언론까지 세월호의 참극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간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작동시킨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시한폭탄이 결국 터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로 더 이상 이대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한국을 떠나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터진 세월호의 참극은 이 모든 문제를 한데 모아 보여주는 사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잠시 슬퍼하다가 금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느닷없는 해경 해체 같은 즉흥적인 대책과 잠깐의 눈물만으로 잊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도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숨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은 더 고통스러워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승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이렇게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남은 승객들을 다 찾아야 하고, 그

들의 안타까운 죽음 모두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이 우리의 애도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는 지금, 아리엘 도르프만의 희곡 〈과부들〉이 생각났습니다. 칠레의 정치적인 상황을 빗대서 극화한 작품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칠레는 선거로 집권한 아옌데 사회주의 정부를 미국의 사주를 받은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로 무너뜨린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후 피노체트 정부는 친미독재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수도 없이 학살해 버렸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훗날 진행된 칠레 정부의 과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노체트의 17년 독재로 약 3,197명에 이르는 학살피해자가 발생했고, 고문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자도 1,197명에 달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칠레의 민중들은 얼마나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아리엘 도르프만은 바로 그런 시대를 연극으로 담아냈습니다. 한 마을에 남은 과부들과 마을에 온 군인들의 갈등을 통해 아리엘 도르프만은 역사를 산다는 것,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마을의 과부들은 지주계급의 착취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자신의 아버지, 남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고 쥐 죽은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할머니인 쏘피아는 다릅니다. 그는 연극 무대의 중심에 설정된 강가에 나와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자신의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정부나 군인에게 가서 자신의 남자들을 돌려달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감옥에라도 가두어 버렸을 텐데 묵묵히 강가에 앉아있는 쏘피아를 막아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기 강가에 앉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군인들에게도 무척이나 신경 쓰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강가에 공장을 짓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 강으로 시체가 떠내려옵니다. 강경파 중위와 회유파 대위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쏘피아를 비롯한 과부들을 어르고 협박하지만 결국 그들은 과부들을 막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과부들은 차츰 굳게 닫은 입을 열고 서로를 위로하고 끝내는 자신들이 발견한 시체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겁니다. 모든 변화는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묵묵히 강가를 지켜본 쏘피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까지 잃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 잊지 않고 있을 때 진실은 드러나고 맙니다. 얼마 전 34주기를 맞은 518 광주 민중 항쟁 역시 마찬가지였고, 감쪽같이 숨겨질 것 같았던 세월호 사건의 진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의 처참한 현실 역시 온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또다시 세월호 사건 같은 비극을 겪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잠깐 슬퍼하다 만다면 이러한 사고는 결국 우리 사회 누군가에게든 다시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 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제대로 된 애도, 진상 규명, 안전대책 마련,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어떻게 다를까?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못 한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 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 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 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 2,500만 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 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 성장 후 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

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 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교육단체도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 · 중 · 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 헌법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 반가운 우리 태극기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보더스(Borders)라는 서점에 종종 들른다. 지난해 일부 지점들이 문을 닫았고 또 곧 폐업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 인터넷과 전자신문에 밀려 우리가 종이책을 멀리한 탓이 아닌가. 전자책은 편리하겠지만, 눈과 몸의 자세를 해치기에 때론 뒹굴뒹굴 쉬면서 종이책장을 넘겨보는 재미를 아직도 난 즐긴다. 아니 영원히 그렇게 여유롭게 살기를 희망한다. 어린 시절 살기 어려웠던 우리는 교과서만 가지고 학교에 다녔다. 중간고사와 학기말 시험이면 참고서가 있는 친구 집으로 가 밤을 새우며 공부했다. 고생하는 부모님께 생떼를 쓰지 않았던 우리는 모두 효자 효녀였다.

좋은 책은 스승이라는 옛말처럼 책 속에는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있다. 아무리 현대인의 생활이 변한다 해도 훌륭한 스승이 있는 책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득이 많지 않아도 누군가 출판사를 지키고 있다.

다행히 나는 미국에 정착한 후 책을 사서 읽는다. 지난번엔 영어로 된 한국어 사전 두 권이 서점에 꽂혀 있어 반가움에 샀다. 당장 필요한 책이 아니었지만, 늘 꽂혀 있는 일본어와 중국어 사전처럼 우리 사전도 계속 서점에 꽂혀 있도록 하는 배려였다. 이민 초기에, 책을 좋아하는 어린 딸과 서점에 들를 때마다 한국에 관한 책들이 없어 가슴 아팠다. 미국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지식은 거의 몰랐다. 딸의 대학 도서관 아시아 학문 관계 서적들 책장 속에서도 한국 도서의 빈약한 현실을 보며 한국 정부의 무관심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 서점에서 만난 어린이용 지도책 표지 위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상기된 나는 가슴마저 벌렁벌렁 뛰었다. 하얀 백색 바탕 위에 독특하고 예쁜 우리 태극기. 당장 책을 펼치어 우리나라 지도를 찾았다. 41쪽에 코리아 지도가 있었다. 괄호 안에 들어 있지만 일본해와 나란히 동해(East Sea)라고 표기되어 있고 곁의 설명에는 북한과 남한에 대하여 몇 자 적혀 있다. 그러면 그렇지.

누가 이런 고마운 어린이용 지도책을 만들었을까! 다시 앞표지로 돌아갔다. 저자는 브라이언 델프(Brian Delf). 또, 출판사가 궁금하여 뒤표지로 눈을 돌렸다. 책이 펼쳐진 모양의 그림 속에 대문자로 DK 라는 마크가 들어 있다. 출판사 웹사이트 주소는 www.dk.com 인쇄는 홍콩에서 했다.

집에 돌아와 책꽂이에 넣다 보니 일전에 샀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Natural History)라는 두툼한 책도 같은 출판사임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인류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좋은 교육용 책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는 출판사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책을 많이 만들어 국내의 아동들에게는 물론 세계로 보급하면 좋겠다. 언젠가 한국에서 동해라고 적힌 지도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동해라고 이름이 적힌 동해바다의 지도를 그려서 팔면서 알리면 어떨까. 언젠가 다시 찾아야 할 원래의 바다이름, 동해. 책의 표지에 있는 태극기 그림을 보면서 왜 이리 눈물겹도록 반가운지. 비록 미국 땅에 살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에 내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며 양주먹을 나는 꼭 쥐어본다.

세조와 고양이 〈오대산 · 상원사〉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잠자리에 든 세조는 악몽을 꾸는지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옆에 누웠던 왕비가 잠결에 임금의 신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정신 차릴 것을 권하니 잠에서 깨어난 세조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마, 신열이 있사옵니다. 옥체 미령 하옵신지요?」

세조는 대답 대신 혼자 입속말을 했다.

「음, 업(業)이로구나, 업이야.」

「마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나쁜 꿈이라도 꾸셨는지요.」

「중전, 심기가 몹시 불편하구려. 방금 꿈에 현덕왕후(단종의 모친 · 세조의 형수) 혼백이 나타나 내 몸에 침을 뱉지 않겠소.」

「원, 저런….」

꿈 이야기를 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으나 세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린 조카 단종을 업어주던 모습이며, 생각하기조차 꺼려지는 기억들이 자꾸만 뇌리를 맴돌았다.

이튿날 아침. 이게 웬일인가. 꿈에 현덕왕후가 뱉은 침 자리마다 종기가 돋아나고 있다니, 세조는 아연실색했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름이 나는 등 점점 악화되었다. 명의와 신약이 모두 효험이 없었다.

임금은 중전에게 말했다.

「백약이 무효이니 내 아무래도 대찰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소.」

「그렇게 하시지요. 문수도량인 오대산 상원사가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왕은 오대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월정사에서 참배를 마치고 상원사로 가던 중 장엄한 산세와 맑은 계곡물 등 절경에 취한 세조는 불현듯 산간벽수에 목욕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신하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늘 어의를 풀지 않았던 세조는 그날도 주위를 물린 채 혼자 계곡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을 즐겼다.

그때였다. 숲 속에서 놀고 있는 조그마한 한 동자승이 세조의 눈에 띄었다.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주지 않으련?」

동자승이 내려와 등을 다 밀자 임금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단단히 부탁의 말을 일렀다.

「그대는 어디 가서든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

「대왕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응수한 동자는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왕은 놀라 주위를 살피다 자신의 몸을 보니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알게 됐다. 왕은 크게 감격했다.

환궁하자마자 화공(畵工)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동자를 그리게 했다. 기억력을 더듬어 몇 번의 교정을 거친 끝에 실제와 비슷한 동자상이 완성되자 상원사에 봉안토록 했다. 현재 상원사에는 문수동자 화상(畵像)은 없고, 얼마 전 다량의 국보가 쏟아져 나온 목각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또 세조가 문수동자상을 친견했던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갈라지는 큰 길목 10km 지점은 임금이 그곳 나무에 의관을 걸었다 하여 「갓걸이」 또는 「관대(冠帶) 걸이」라고 부른다.

병을 고친 이듬해 봄, 세조는 다시 그 이적의 성지를 찾았다. 상원사에 도착한 왕은 곧바로 법당으로

들어갔다.

막 예불을 올리는데 어디선가 별안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고 자꾸 앞으로 못 가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예감이 든 왕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병사들을 풀어 법당 안팎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불상을 모신 탁자 밑에 세 명의 자객이 세조를 시해하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숨어 있었다. 그들을 끌어내 참하는 동안 고양이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하마터면 죽을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위해 세조는 강릉에서 가장 기름진 논 5백 섬지기를 상원사에 내렸다. 그리고는 매년 고양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도록 명했다. 이때부터 절에는 묘답(猫畓) 또는 묘전(猫田)이란 명칭이 생겼다. 즉 고양이 논, 또는 고양이 밭이란 뜻. 양이를 잡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최근까지도 봉은사 밭을 묘전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또 지금도 상원사에 가보면 마치 이 전설을 입증하는 듯 문수동자상이 모셔진 청량선원 입구 계단의 좌우에는 돌로 조각한 고양이 석상이 서 있다.

속설에 의하면「공양미」란 말도 고양이를 위한 쌀이란 말이 변하여 생겼다는 일설도 있다.

고양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 세조는 다시 상원사를 찾았다.

자신에게 영험을 베풀어준 도량을 중창하여 성지로서 그 뜻을 오래오래 기리기 위해서였다.

대중 스님들과 자리를 같이한 왕은 상원사 중수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공양시간을 알리는 목탁이 올렸다.

소탈한 세조는 스님들과 둘러앉아 공양 채비를 했다.

「마마, 자리를 옮기시지요.」

「아니오. 대중 스님들과 함께 공양하는 것이 과언은 오히려 흡족하오.」

그때 맨 말석에 앉아 있던 어린 사미승이 발우를 들더니, 세조의 면전을 향해 불쑥 말을 던졌다.

「이 거사(居士), 공양하시오.」

놀란 대중은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가. 정작 놀라야 할 세조는 껄껄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도인될 그릇이로다.」

왕은 그 사미승에게 3품의 직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 표시로서 친히 전홍대(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를 하사하였다.

아마 세조는 지난날 자신의 병을 고쳐준 문수동자를 연상했던 모양이다. 그 후 세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되라는 징표로 붉은 허리를 졸라매 주는 풍속이 생겼다 한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참배객 유의사항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불자들의 기도처입니다.
최근 더위와 주말 나들이로 많은 분이 길상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신도님과 참배객께서는 사찰 방문 시 유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어 수행은 물론 마음의 쉼터로서 모든 불자가 자랑스러워할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치게 노출된 옷(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소매 없는 상의 등)이나 슬리퍼를 신고 경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으로 애완견, 자가용,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도량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행동, 지나친 애정표현을 자제해 주십시오.**

미혼모에게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싱글 맘입니다. 현재 6살이 된 딸을 양육하며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두리홈」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출산을 위해 두리홈에 입소 한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 연을 맺고 있답니다.

두리홈은 저에게 고향과 같은, 친정엄마와 같은 곳입니다. 5년간 저희 아이를 같이 키워주셨고, 저의 학업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을 생각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기저귀가 부족한데 더 안 주시지? 분유도 다 떨어졌는데 더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항상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기저귀 몇 분유인 필수 물품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혼 양육모는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기저귀와 분유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로 인한 엄마들의 복지는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기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정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짐으로써 마음이 따뜻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아이에게도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많은 분들이 주신 사랑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부모의 아동 학대 및 유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왜 시설을 방문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엄마들은 모두 취업하고자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이미 취업하여 일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며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까지 지속하고 있어 자기 발전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해하던 엄마들이 이제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들에게 곁에서 같은 길을 걸어온 당사자로서, 항상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것의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닿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맑고 향기롭게에서 길상화 장학생으로 저를 선발해주신 이사장 스님, 사무국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회원님, 저처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 호명되는 분들 대부분이 밝은 표정과 웃음을 띠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런 미소를 띰에 내심 한탄을 하던 저 자신이 선생님께서 한명 한명마다 읽어주시는 그 사람의 성향과 장래의 진로와 같은 내용들은 저를 반성하게 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증서 수여식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안내해주시는 길상사는 색색의 꽃들과 나무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치와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던 기억들로 프로그램은 모두 끝났지만 주지 스님께서 사주셨던 커피의 향과 미소를 머금은 장학생들의 얼굴은 잊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서툰 글 솜씨라 제 감사의 마음이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나눔

글 • 황순이(광주모임 회원)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우리 조상님들처럼
기쁨 떡, 행복 과일을 나눕니다.

준법로 노인정은 수줍게 새색시처럼 나누더니
지호로를 지나 푸른 노인정쯤 왔을 때는
바둑이처럼 뛰어다니며 나눕니다.

"기쁨 떡, 행복 과일 맛 좀 보세요."
"오메, 고마운 거"
떡 향이 과일 향이 함께 노인정을 들락거립니다.
이슬비 가랑비님들도 따라 다닙니다.

나무 노인정에는 나무 향기가 나고
꽃 노인정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꽃 내음 나무내음 틈으로 우리들의 내음도 맡아봅니다.
당신 향기 내 향기 우리는 맑은 향기입니다

– 맑고 향기롭게 광주모임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에 떡과 과일을 나눠 드리는 자원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글로 보내 주셨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한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

지난 5월 6일 부처님 오신 날, 길상사 뜰에서 친환경 체험마당 및 녹색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체험 이벤트로 천연 녹차 스킨 만들기와 천연치약 만들기, 에코백에 그림 그리기, 나만의 재활용 노트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녹색나눔장터에서는 기증 도서 및 잡화 그리고 봉사자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천연화장품, 친환경 수세미, 의류리폼상품, 부엉이 브로치&핸드폰 고리, EM원액, 화분&꽃씨 등을 판매하였으며, 전통장류와 불교 서적 등을 판매하는 금강정사팀도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캠페인'도 진행되었는데, 본모임에 뜻을 내준 대학생 6명이 모금활동가로 나서서 노인 자살 예방 동참 서명, 동전모금통 배포, CMS후원 및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와 소식지 배포, 아름다운 마무리 안내서를 나누며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해보았습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특별영화시사회 '피부색깔=꿀색' 상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길상사 공양간 '설거지' 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전화말벗 대상자 가정방문 다녀왔습니다.

2007년 시작한 '전화말벗' 봉사활동이 2기 팀을 구성하여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의료비 지원,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 사업 연계 및 2013년에는 BTN 생방송 '보시'와 협력 후원이 이어지면서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이 대상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사무국 간사와 자원봉사자 각 1명이 대동하여 전화말벗 대상자 75가구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문할 때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식지와 스티커를 배부하며 봉사자와 대상자 간의 얼굴과 생활환경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발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승가원장애아동들과 홍릉수목원 다녀왔습니다.

본모임은 청소년 봉사프로그램으로 승가원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요가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난 5월 18일에는 홍릉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1년에 두 번 계획한 야외나들이 중 봄 소풍인 셈이었지요.

청소년 봉사자들에게 장애아동들과 바깥나들이 활동에 대한 주의사항과 일정을 소개하고 승가원 아동들과 봉사자들이 짝꿍을 맺어 아무런 어색함 없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불편함의 정도가 큰 친구들은 휠체어를 밀어주며 수목원까지 약 2km의 거리를 40분 넘게 걸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은 15분이면 충분했겠지만, 아동들과 함께한 걸음걸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소 무심코 걸었던 길이 얼마나 거칠고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인도 곳곳이 패어 있고 경사가 제각각이라 휠체어를 탄 친구들은 도움 없이는 이동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청색 신호등이 적색으로 너무 빨리 바뀌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를 위하는 교통정책으로 바뀔 때도 되었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홍릉수목원에 도착하여 모두가 깊은 숲에 들어온 듯 깊게 숨을 쉬고 마시며 점차 느긋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만질 듯 솟아오른 참엽수림을 지나 수목원 안으로 들어갔지요. 휴식시간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서툰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져 나무를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장기자랑도 잠깐 진행했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청소년 봉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안전관리, 편견이 아닌 이해와 긍정적인 친근감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동전 모금 캠페인'

맑고 향기롭게는 각 지역 모임 실정과 형편에 맞게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모임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 김장 지원, 난방비, 의료비 지원, 차상위 독거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모임은 독거노인에게 점심공양 나눔 및 도시락 배달을, 경남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돕기 및 독거노인 결연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모임과 부산모임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반찬을 나눠드리고 노인시설에서 자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자비의 주머니'에 생필품을 담아 1,000여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동전 한 닢부터 나누는 생활 속 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전모금통은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 사무국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식지 발송 함께하실 분 ~~

소식지 발송 작업은 매월 초에 이뤄지며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전후로 길상사 내 본모임 소모임방 '세계일화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소 본모임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시간적으로나 힘에 겨워 참여하기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한 달에 딱 한 번, 2시간만 시간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무국으로 참여 의사를 신청하시면 봉사 일정을 휴대폰 문자로 연락드리며, 시간이 가능하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앙모임 상근활동가 변동사항 안내

중앙모임의 여러 나눔 사업을 진행했던 황순재 상근간사(사업부장)님이 학업을 위해 5월 말일로 퇴사하고 새롭게 안근호 상근간사님이 입사하였습니다. 안근호 간사님은 인천녹색연합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앞으로 봉사현장에서 회원님과 만날 예정입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니신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상황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6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2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5,12,19,20,26,27일)/김치(13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2,9,16,23,30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셋째 일요일(15일) 요가봉사/ 넷째일요일(22일)나들이 봉사/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1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넷째 화요일(24일)/오후 1시 30분/삿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6월 6일(현충일), 6월 29일(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11,18,25일(수)오전 10시(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6월 4일은 지방선거일로 인한 휴무로 강좌가 없습니다.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3,10,17,24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6월 29일(일)/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고아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6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경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6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 1시 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6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6월 정기 활동 안내

- 도시락 나눔 활동-매주 월요일~금요일/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활동
- 공양 나눔 센터-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6월 7일(토) 오후 8시 ~ 10시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6월 14일(토) 오후 9시 ~ 6월 15일(일) 새벽 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 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6월 14일(토) 오후 8시 30분 ~ 6월 15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 보호대

6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시 : 매월 셋째·넷째 주말
  6월 21일(토) ~ 6월 22일(일)
  6월 28일(토) ~ 6월 29일(일)
- 시간 : 오후 12시 30분 ~ 오전 9시 30분
- 참가비 : 7만 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백중 초재
- 일시 : 6월 29일(일)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90일 아미타기도
- 일시 : 5월 13일(화) ~ 8월 10(일)
- 시간 : 오전 9시50분
- 장소 : 극락전

부탄·카트만두 성지순례 안내

부처님이 평생 걸으신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느끼고 또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또한 불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영광이자 평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성지마다 부처님의 숨결과 숭고한 가르침이 깃든 불교 왕국 부탄과 카트만두로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순례 기간** : 11월 10일(월) ~ 11월 18일(화) / 7박 9일
- **동참금** : 370만 원

(여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크로드 여행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720-9600)
* 기타사항은 길상사 홈페이지 참조 및 종무실 방문 문의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7월 5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7월 12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7월 12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14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7월 20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7월 27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 2재	7월 6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 3재	7월 13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 4재	7월 20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 5재	7월 27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20분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어려운 형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의 재활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과 지역모임 및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사업'은 두 해 동안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아동 등 20명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드렸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 지원이라는 세상 사업을 통하여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원대상** :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 **지원내용** : 수술비, 간병비, 의약비 등을 포함한 병원 치료비(최대 200만 원)
- **신청기간** : 2014. 6. 10(화) ~ 2014. 7. 31(목)
- **선정발표** : 2014. 8. 8(금)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각 1부
  ②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첨부(해당자의 경우)
  ③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전 · 월세계약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부채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
  ④ 의료비 지원 후 병원으로부터 영수증 증빙
- **신청방법**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① 이메일(clean94@hanmail.net), 우편, 방문 접수
  ② 추천 자격 :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각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사회복지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 문의
  ㈜맑고 향기롭게 www.clean94.or.kr / ☎ 02.741~4696

2014년 6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32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 길상사 내
☎02)741-4696